

군 계약학과 ‘사이버국방전형’ 신설... 최고 수준 인재교육 기회도



세종대학교
SEJONG UNIVERSITY

전체 모집인원 55.2% 수시 모집
AI로봇학과, 지역균형으로 32명 선발

세종대학교(총장 엄중화)는 전체 모집인원의 약 55.2%인 1617명을 수시모집에서 선발한다. 학생부교과전형(지역균형, 항공시스템공학)으로 393명, 학생부종합전형(세종창의인재(면접형·서류형), 기회균형, 사회기여 및 배려자, 서해5도학생, 특성화고졸 재직자, 사이버국방, 국방시스템공학) 774명, 논술우수자 전형 340명, 실기/실적전형(실기우수자, 예체능특기자)으로 110명을 선발한다.

세종대는 2025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지능정보융합학과, 콘텐츠소프트웨어학과 등 2개 첨단학과를 신설해 스마트



생명산업융합학과, AI로봇학과, 인공지능학과는 81명을 선발한다. 지역균형전형, 논술우수자전형의 경우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므로 지원 시 유의해야 한다.

학생부교과전형인 지역균형전형으로 223명을 선발하는 자유전공학부는 교과성적만을 반영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다 학생부 반영 교과 등 반영 방법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자유전공학부는 국어, 수학, 영어 교과만을 반영하며 공통/일반선택과목 80%, 진로선택과목 20%로 가중치를 적용한다. 수능최저학력기준 역시 국어, 수학, 영어, 탐구(사회/과학 중 1과목) 중 2개 영역 등급의 합이 5등급 이내여야 한다.

육군과의 협약을 통해 설치 및 운영되는 계약학과 선발 전형인 사이버국방전형은 2025학년도에 신설됐으며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선발한다. 1단계에서 서류평가로 3배수를 선발하며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과 면접평가, 체력검정 및 육군본부 주관 전형(합/불 판정)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그 외에 세종대는 군 계약학과로 학생부교과(항공시스템공학 특별전형), 학생부종합(국방시스템공학 특별전형) 전형을 운영하며 각각 공군 및 해군과의 협약을 통해

설치·운영되는 계약학과이다. 세종대는 최고 수준의 신입생 장학금으로 유명하다. 세종인재양성프로그램은 신입생 중 우수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해 수준 높은 심화교육과 각종 특전을 제공하는 인재양성 프로그램이다. 입학단계에서부터 졸업 후 대학원 학업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대상 학생은 장학금을 포함한 각종 재정적 지원과 Sejong Honors Program(SHP)을 통해 세종글로벌 창의인재로 거듭난다. 1대 1 지도교수 지도하에 학사·석사·박사 3+3 프로그램(학사 3년, 석·박사 3년)도 이수 가능하다. 세종대는 10일부터 13일까지 원서 접수를 실시한다.



변재문 입학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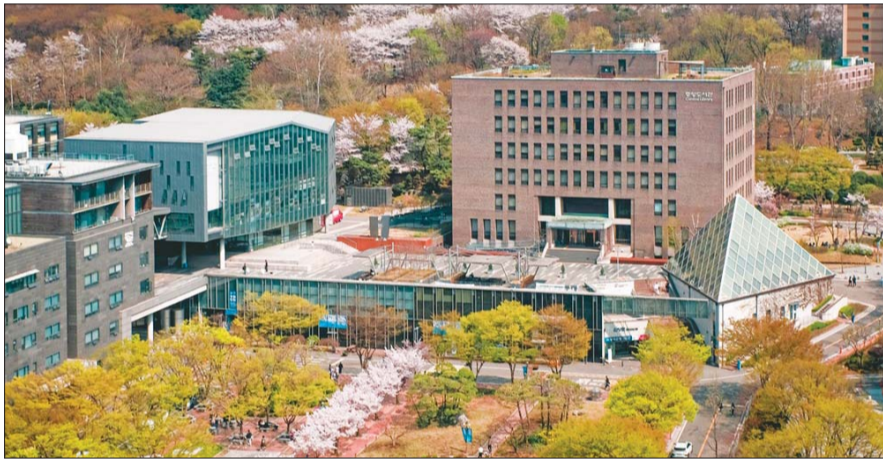
자유전공학부 47명 선발... 학생부종합, 면접 50% 반영



숭실대학교
Soongsil University

논술전형서 논술 비율 80%로 확대
과기부 ‘SW중심대학’ 선정, 19명 선발

숭실대학교(총장 장범식)는 2025학년도 전체 모집인원(3029명)의 약 57%인 1739명(정원의 포함)을 수시모집을 통해 선발한다. 2025학년도 숭실대 수시모집의 특징은 ▲학생부종합전형의 면접 반영 비율 30%에서 50%로 확대 ▲학생부종합(SW우수자전형) 전형의 금융학부 모집단위 신설 ▲학생부교과, 논술우수자전형의 인문계열 수능최저학력기준이 2개 영역 합 5등급 이내로 완화 ▲논술우수자전형 논술 60%+학생부 교과 40%에서 논술 80%+학생부 교과 20%로 변경 ▲학생부교과 전형의 자유전공학부 모집단위 신설(자유



전공학부 인문 20명, 자유전공학부 자연 27명 선발) 등이다. 학생부종합 SSU미래인재전형의 경우 총 628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1단계는 서류종합평가 100%로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는 1단계 성적 50%+면접 50%로 선발한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없다.

학생부종합(기회균형전형)은 130명, 학생부종합(특수교육대상자전형)은 38명의 모집인원이 배정돼 있다. 학생부종합(특성화고등을졸업한재직자전형)은 일괄합산전형으로 서류 100%로 합격자를 선발한다.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2단계 SW중심대학에 재선정돼 올해도 학

생부종합(SW우수자전형)전형으로 총 19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모집단위 별로 컴퓨터학부(4명), 글로벌미디어학부(4명), 소프트웨어학부(4명), AI융합학부(5명), 금융학부(2명) 선발하며, SW우수자전형의 전형방법은 SSU미래인재전형과 동일하다.

학생부교과(학생부우수자전형)는 총 473명을 선발한다.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 학생부교과(학생부우수자전형)에서 베어드학부대학내 자유전공학부를 신설해 자유전공학부(인문) 20명, 자유전공학부(자연) 27명, 총 47명을 선발한다. 자유전공학부는 수험생 성향에 따라 인문/자연 두 모집단위로 분리 선발할 예정이지만 입학 후 계열/인원 제한 없이 모든 모집단위로 전공 선택이 가능하다.(일부 계열 제외) 논술우수자전형 모집인원은 총 253

명이며,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은 논술 80%+학생부교과 20%이다. 학생부우수자전형과 논술우수자전형의 인문·경상계열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지난 2024학년도 국수영탐 2개 영역 합 4등급 이내에서 2개 영역 합 5등급 이내로 완화됐다. 숭실대는 수시모집 원서를 내달 10일 오전 10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한다. 논술고사는 11월 16일(토), 학생부종합(SSU미래인재전형) 면접은 11월 29일(금), 학생부종합(SW우수자, 고른기회, 특수교육대상자전형)과 정보보호특기자전형 면접은 11월 30일(토)에 각각 시행할 예정이다.



장성연 입학처장

지역균형전형 648명 모집, 학생부교과 100%에 수능최저 적용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수시모집서 전체 67%인 2686명 선발
70주년 맞아 캠퍼스 조성 등 특성화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는 2025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전체 모집인원(3985명) 중 2686명(67.4%)을 선발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인 인하미래인재 전형에선 1020명을 선발한다. 1단계는 서류 종합평가(100%), 2단계는 서류종합평가(70%)와 면접평가(30%)를 반영해 뽑는다. 학생부교과 전형인 지역균형 전형의 모집인원은 648명이다. 소속(졸업)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지원할 수 있으며, 고등학교별 추천 인원의 제한은 없다. 학생부교과 성적 100%에 수능최저



학력기준을 적용해 선발하기 때문에 수능최저학력기준 충족 여부가 중요한 전형이다. 논술 우수자 전형은 458명을 선발하며, 논술 70%와 학생부 30%를 반영한다. 학생부 교과 등급 간 환산점수 차이를 축소해 논술의 실질적 영향력을 더

욱 강화했다. 인하대는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과 간 벽을 허무는 융합형 인재, 첨단분야 인재 등을 선발하는 ‘모집 단위 광역화’에 나섰다. 먼저,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들의 전공선택권을 강화하는 전공자율

선택제를 도입했다. 융합학부 중심의 프런티어창의대학을 신설하고, 자유전공융합학부와 단과대학의 5개 융합학부를 개설했다.

프런티어창의대학 이외에 자율전공 선택이 가능하도록 신설된 단과대학내 융합학부도 있다.

공과대학 내 전기전자공학부는 심화 트랙으로 반도체집적회로, 전기에너지, 지능제어계측, 컴퓨터미디어통신 등을 선택할 수 있다. 문과대학내 영미유럽인문융합학부는 영어영문학, 프랑스어문화 등의 전공을 자율 선택할 수 있다.

인하대는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첨단 분야 산업계 수요를 반영해 이차전지융합학과와 첨단바이오의약학과도 신설했다. 보건의료 분야의 증원도 눈에 띈다. 의과대학 의예과는 입학정원이 확대됐

고, 간호학과는 바이오·의과학 융합 특성화를 이끌기 위해 간호대학으로 승격했다. 인하대는 올해로 개교 70주년을 맞았다. 70년의 역사를 품은 용현캠퍼스, 항공·우주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는 송도 항공우주융합캠퍼스, 송도에 새롭게 조성할 계획인 인하 오픈 이노베이션 캠퍼스 등 캠퍼스별 특성화 전략을 세워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대학이 되는 게 인하대의 목표다. 인하대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다음달 9일부터 13일까지다. 전형 일정 이중복되지 않으면 모든 전형에서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신동훈 입학처장